

보도 일시	2021. 12. 30.(목) 09:00	배포 일시	2021. 12. 30.(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승범 (044-203-2511)
		담당자	서기관 이하늘 (044-203-2512)

##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

-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발표 -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33.6%로 감소, 매체를 통한 관람 횟수 32.4회로 증가
- 하루 평균 여가시간 평일(6분), 휴일(12분) 각각 증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여가 활동 증가
- 여행·장기휴가 중심에서 육아·휴식 중심으로 휴가 사용 양상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 이하 연구원)과 함께 2021년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 승인통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 ▲ (조사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각 1만여 명, ▲ (대상 기간) '20. 8. 1.~'21. 7. 31. ▲ (조사 기간) '21. 9. 6.~11. 26.

\*\* 근로자휴가조사: ▲ (조사 대상)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1,856개)와 상용근로자(5,265명), ▲ (대상 기간) '20. 1. 1.~'20. 12. 31. ▲ (조사 기간) '21. 9. 9.~11. 30.

특히 이번 세 가지 조사의 대상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근로자 휴가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여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이 조사 결과에 온전히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감소하고 매체를 이용한 간접 관람 횟수는 32.4회로 전년 대비 6.8회 증가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여가시간(평일 3.8시간/0.1시간 증가, 휴일 5.8시간/0.2시간 증가)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거나(42.8%로 10.2%p 증가) 집 근처 또는 공원에서(공터·공원 1순위 답변 비율 29.5%로 7.7%p 증가)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졌다. 근로자들의 연차 일수·사용률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여행을 위한 연차 사용은 24.2%로 전년 대비 11.1%포인트(p) 감소했고, 휴식(38.7%로 4.8%p 증가)·집안일(22%로 4%p 증가)을 위한 연차 사용은 증가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은 줄고(9.4%로 8.8%p 감소) 8월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비중이 16.9%로 전년 대비 2.5%포인트(p) 감소해 하계휴가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이 달라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개관한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을 통해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생활문화센터 197개소를 새롭게 증설하는 등 문화공간도 확대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22년 263만 명)해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을 법제화하고, ‘제2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문화여가분야 국가승인 통계 개요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상세 결과  
3. 국민여가활동조사 상세 결과  
4. 근로자 휴가조사 상세 결과



###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048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조사기간) 2021년 9월 6일 ~ 2021년 11월 26일
- (조사방법) 일대일 가구 방문 면접조사

### □ 국민여가활동조사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031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조사기간) 2021년 9월 6일 ~ 2021년 11월 26일
- (조사방법) 일대일 가구 방문 면접조사

### □ 근로자휴가조사

- (조사대상)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1,856개)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5,265명)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조사기간) 2021년 9월 9일 ~ 2021년 11월 30일
- (조사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3.6%로 문화예술행사 관람·참여 감소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관람률 증가  
 ‘구입 및 대여’를 위한 지출, 영화·대중음악/연예·문학 분야에서 증가

지난 1년간(’20. 8. 1.~’21. 7. 31.)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6.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도 1.4회로 전년 대비 1.7회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9.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관람 횟수는 32.4회로 6.8회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련 지출 항목은 영화(31.9%)·대중음악/연예(16.0%)·문학(12.5%) 부문 구입 및 대여 관련 지출이 증가한 반면, 관람·입장료 및 강습비·학원비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의 비대면화’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가속화된 결과로 보인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횟수>

(단위: %)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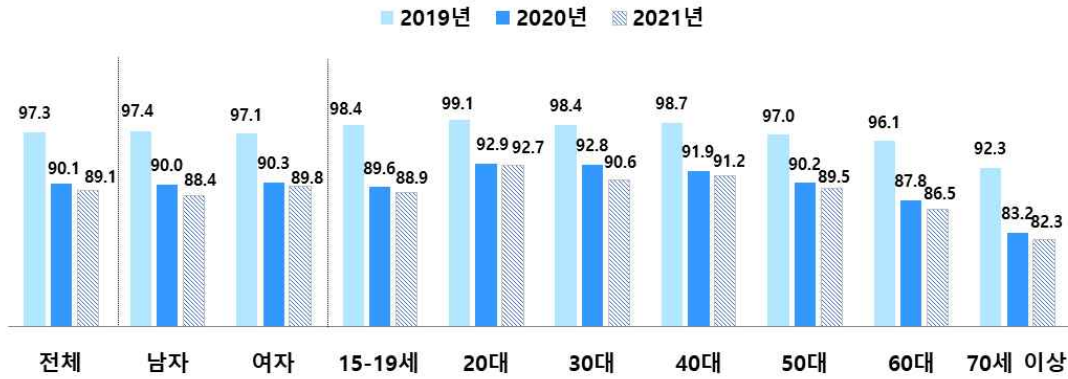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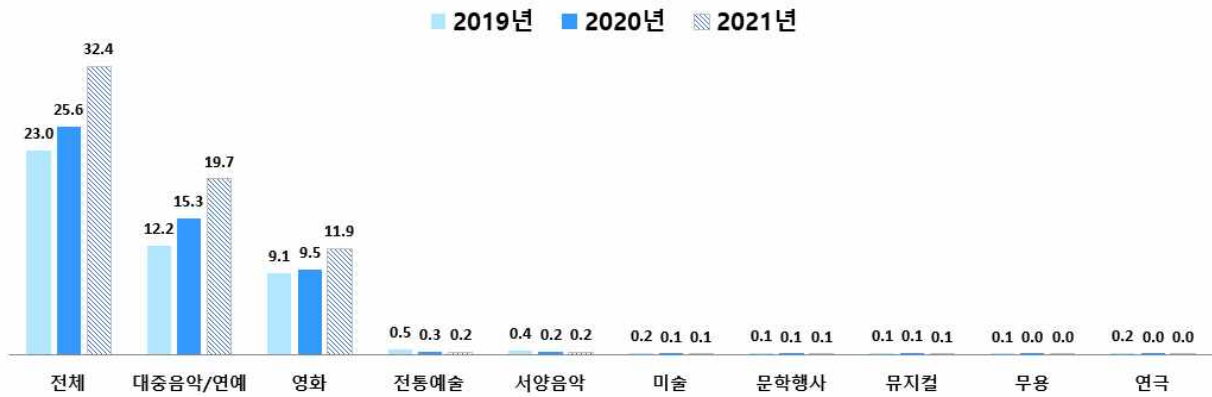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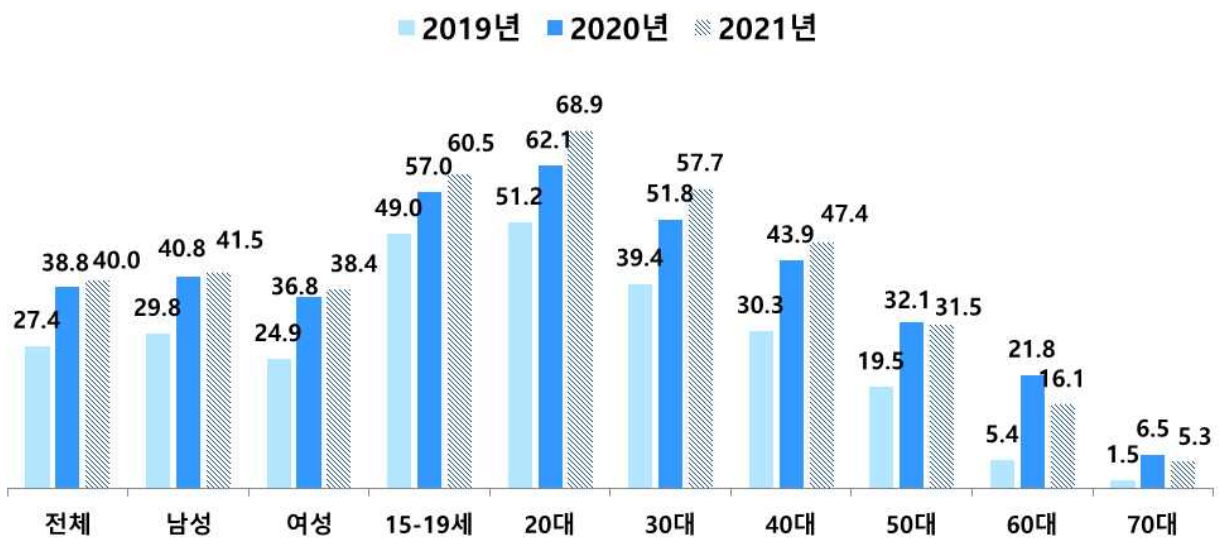
<분야별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회)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이용 관람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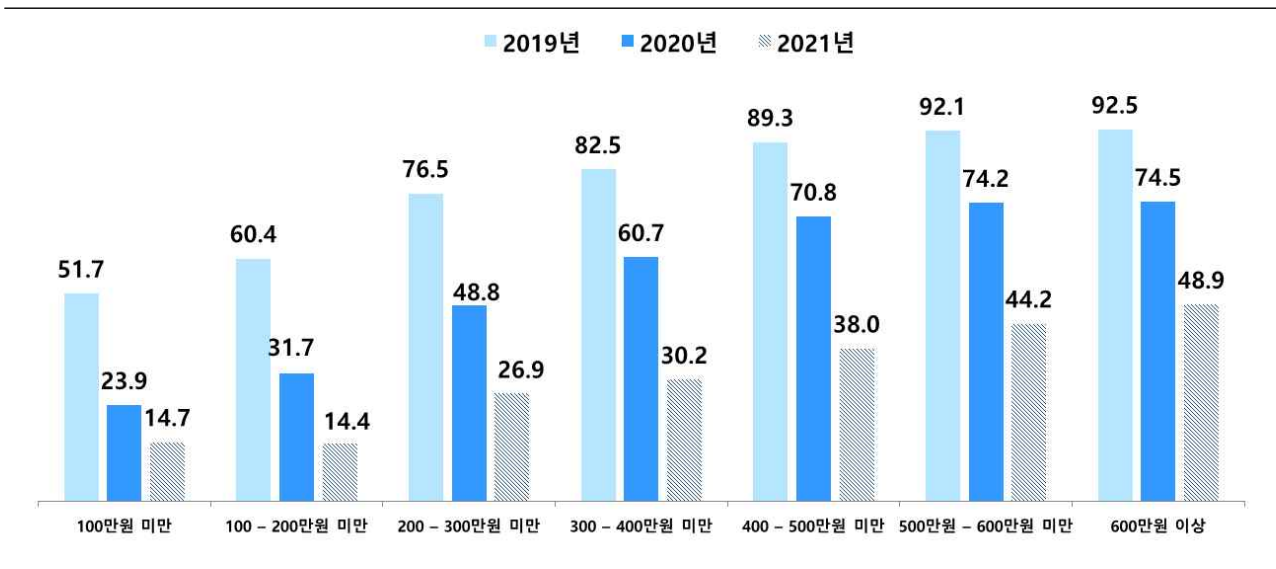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계층별 문화예술 관람률 하락 격차 有

월평균 가구소득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모든 가구의 관람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중위소득 계층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300~400만 원 미만에서 82.5%→60.7%→30.2% 와 같이 전년 대비 절반 절반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소득별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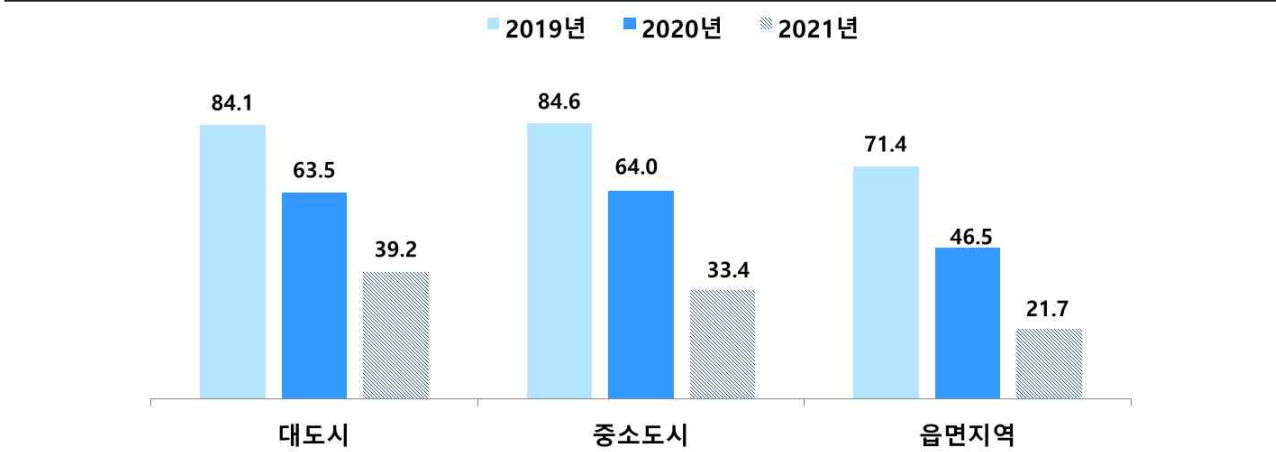
(단위: %)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39.2%), 중소도시(33.4%) 보다 읍면지역의 문화예술문화예술 관람률이 21.7%로 크게 감소했다.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2020년(46.5%) 대비 감소폭이 24.8%p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의 문화 소외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지역 규모별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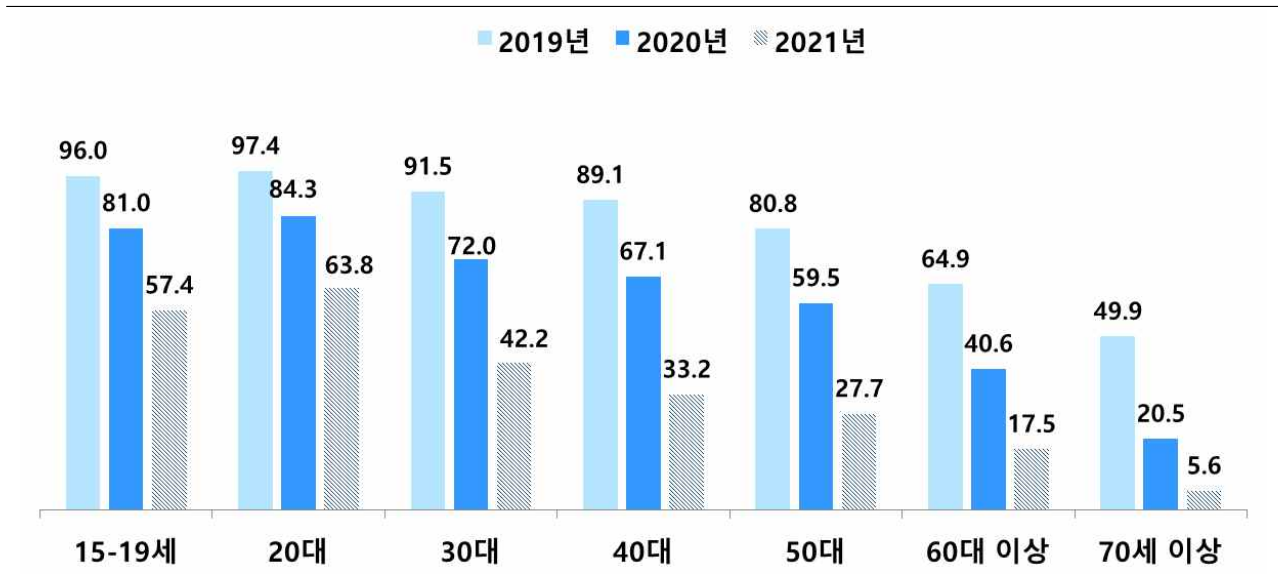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문화행사 관람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관람률은 5.6%로 크게 하락했다. 30대 이하의 관람률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2020년과 비교할 때 40~50대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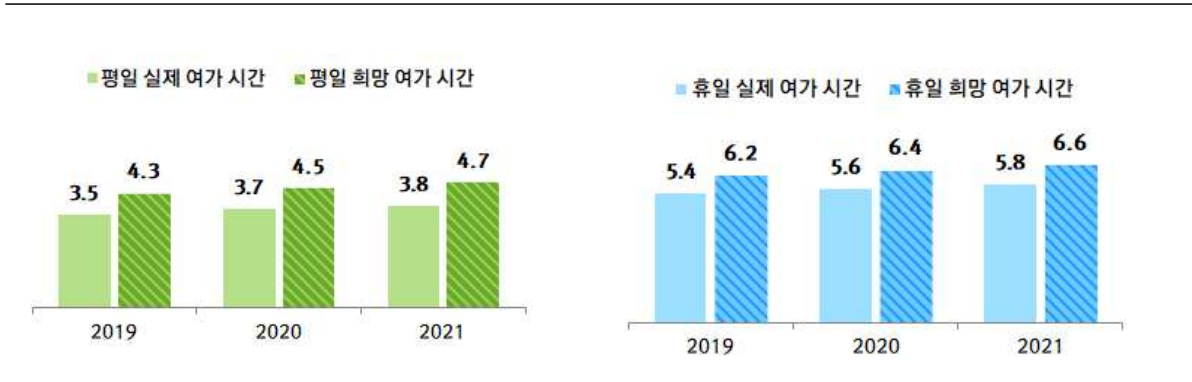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전년 대비 평일 0.1시간, 휴일 0.2시간 증가  
 모바일 콘텐츠 및 동영상 시청이 전년대비 10.2%p 증가하는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주된 여가활동으로 부상

우리나라 국민의 2021년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주평균 30.6시간)으로 전년 대비 평일은 0.1시간(6분), 휴일은 0.2시간(1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과 비교한다면 평일 0.3시간, 휴일 0.4시간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여가시간의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휴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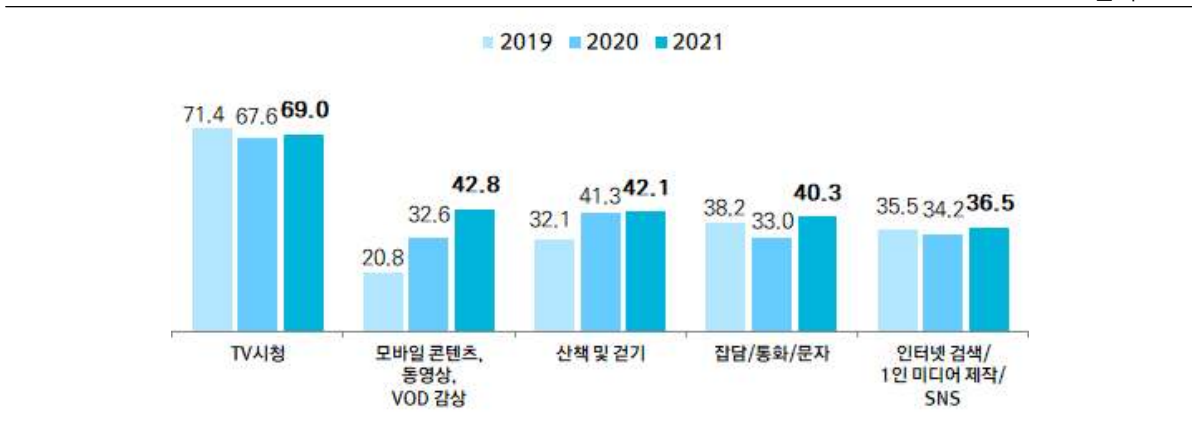
(단위: %)



세부적인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69.0%)이었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19년 71.4%) 소폭 감소했다. 그에 비해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은 코로나가 시작되며 큰 폭으로 상승(전년 대비 1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여가활동(1~5순위) : 상위 5개>

(단위: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50.0%로 ('19년 대비 12.9%p 증가) 여가시간의 절반가량을, 휴일 역시 39.7%로 ('19년 대비 10.1%p 증가) 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평일, 휴일)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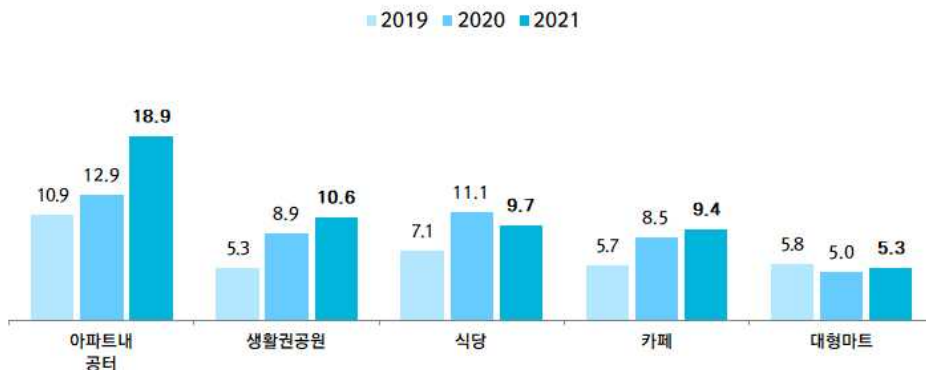


집 주변에서 즐기는 가벼운 여가활동 증가, 혼자서 즐기는 여가 증가 전반적인 여가지출 14만 9천원, 여가생활 만족도 49.7%로 전년 대비 감소

조사결과 국민이 가장 많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은 '아파트 내(집 주변) 공터'로(18.9%)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19년 대비 8.0%p, 전년 대비 6.0%p 증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 곳은 '생활권 공원'으로 이 역시 코로나 이전 시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1순위) : 상위 5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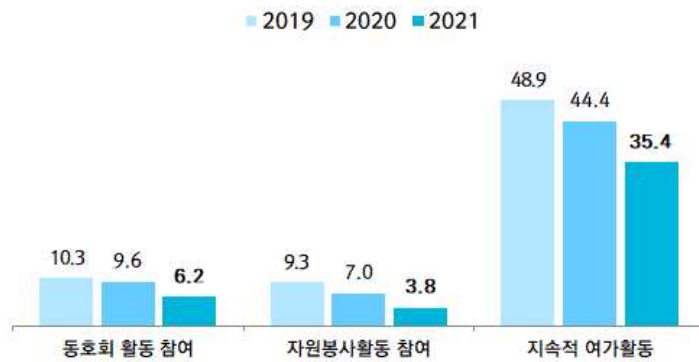


또한 동호회 활동 등 사회적·지속적 여가활동 등 감소한 반면,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의 비율이 63.6%로(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기준) 전년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상승에 모임을 자제하며, 상대적으로 생활권 내 실외에서 가볍게 즐기는 여가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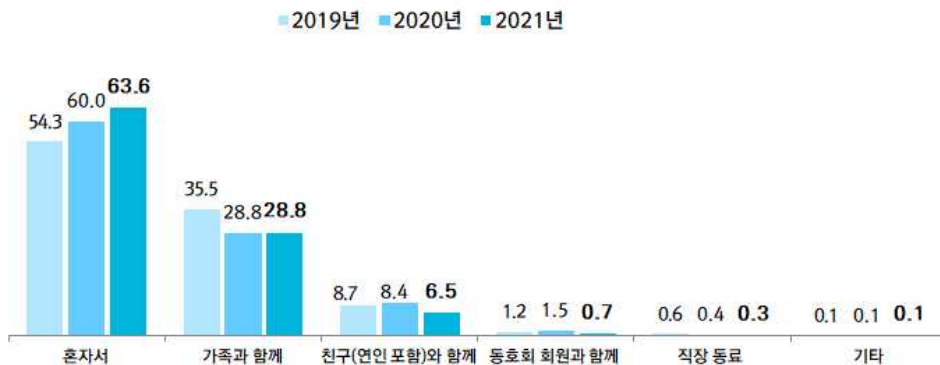
**<사회성 여가활동 및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여가활동 동반자\_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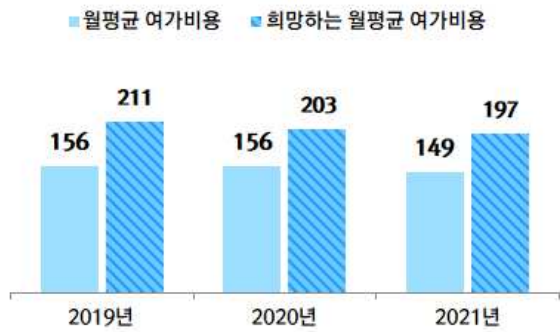
(단위: %)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지출하는 여가비용은 1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7천원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9.7%로 전년 대비 2.8%p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여가활동의 제약으로 문화, 스포츠, 관광 활동 대신 휴식 활동이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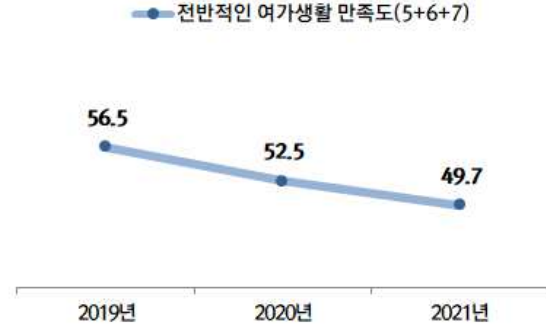
<월평균 여가비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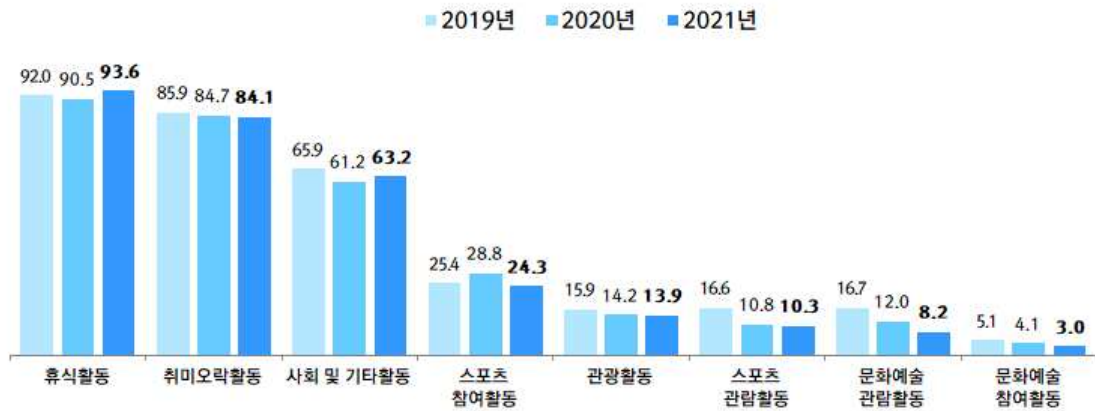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1~5순위합계)>

(단위: %)



## 붙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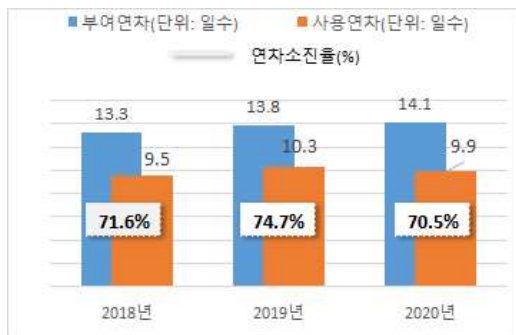
## 근로자휴가조사 상세 결과

평균 연차일수는 14.9일로 0.1일 감소, 연차 사용률 71.6%로 0.8%p 감소  
20~30대·미혼·1인 가구 연차 사용 감소, 40대 이상기혼·유자녀 근로자 휴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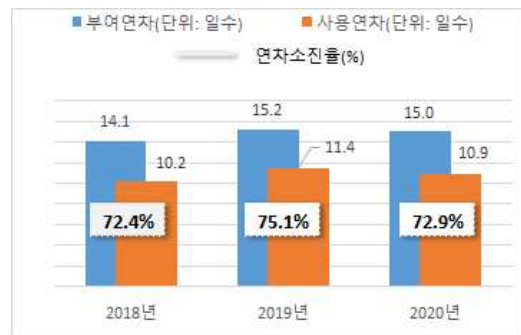
조사결과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들의 2020년 연차 부여 일수는 14.9일로 2019년 15.0일과 유사하며, 연차 소진율은 71.6%로 2019년(72.4%) 대비 0.8%포인트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1인 가구, 미혼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비교적 여행 및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은바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의 이동 및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휴가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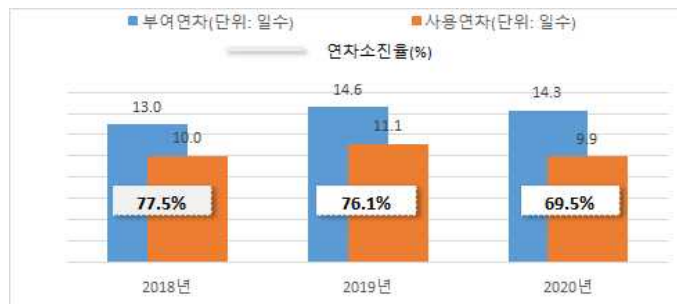
<20대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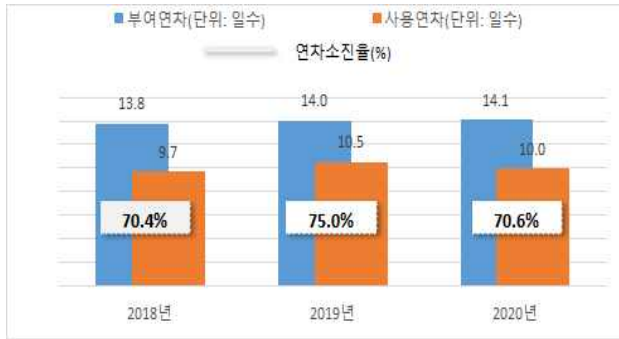
<30대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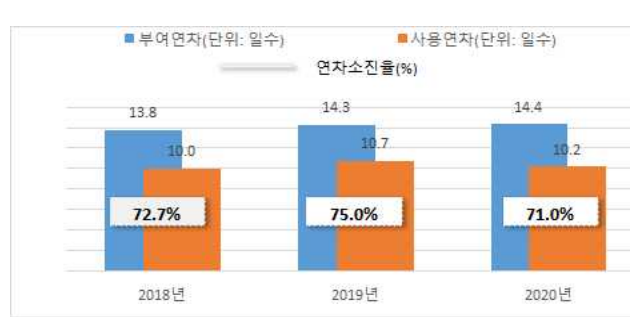
<1인 가구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미혼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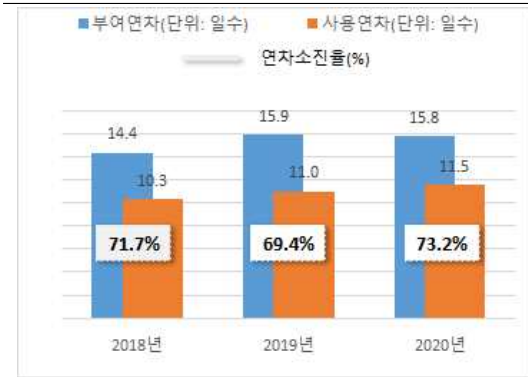


<자녀없는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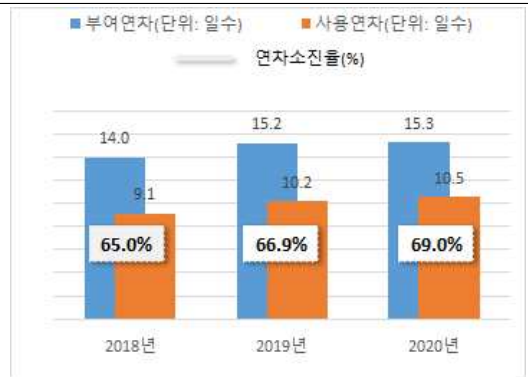


반면 40~50대, 기혼,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육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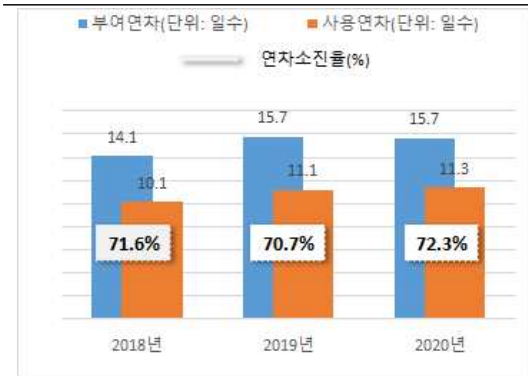
<40대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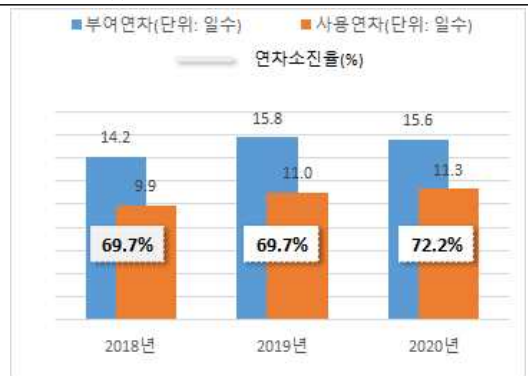
<50대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기혼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자녀있는 근로자 연차 휴가 변화>



‘여행 및 여가활동’ 목적 연차 사용 감소, ‘휴식’, ‘집안일’ 연차 사용 증가  
 휴가 비용, 장기휴가 사용률, 하계휴가, 연차 사용 만족도 감소

여행·여가를 위한 연차는 31.2%로 감소한 반면 휴식을 목적으로 사용한 연차의 비중이 38.7%로 증가하였으며, 연차 휴가 시 여행·여가 비용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5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2.9% 감소하는 등, 휴가에 사용한 총 비용이 85만 3천원으로 전년 123만 4천원 대비 약 30.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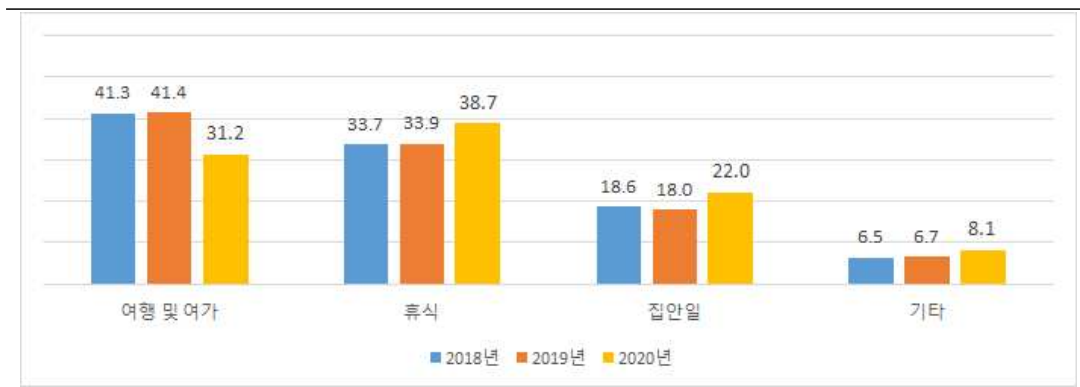
또한 근로자의 9.4%가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8%p 감소하였으며, 휴가 사용이 7~8월 뿐 아니라 여러 계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기간·여행을 위한 휴가 사용이 제약받았으며, 반면 원격 수업, 가정보육, 병원 치료 등 일회성 연차 사용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추측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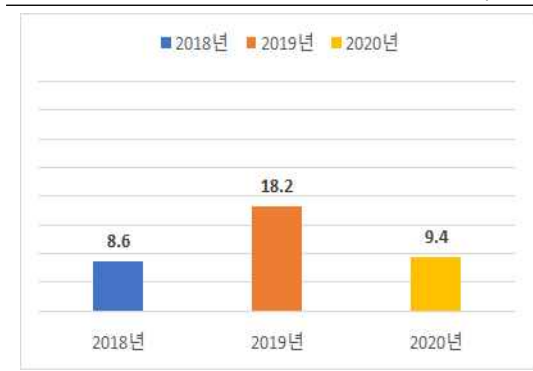
**<사용목적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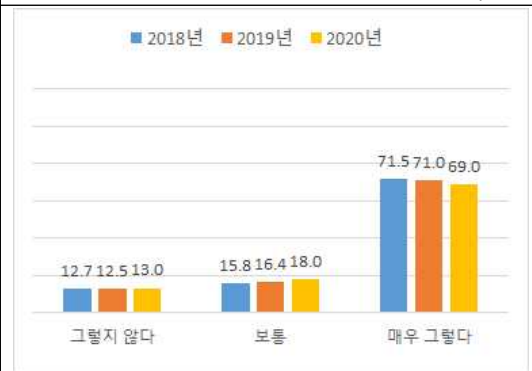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

(단위: %)



**<5일 이상 연차 연속적 사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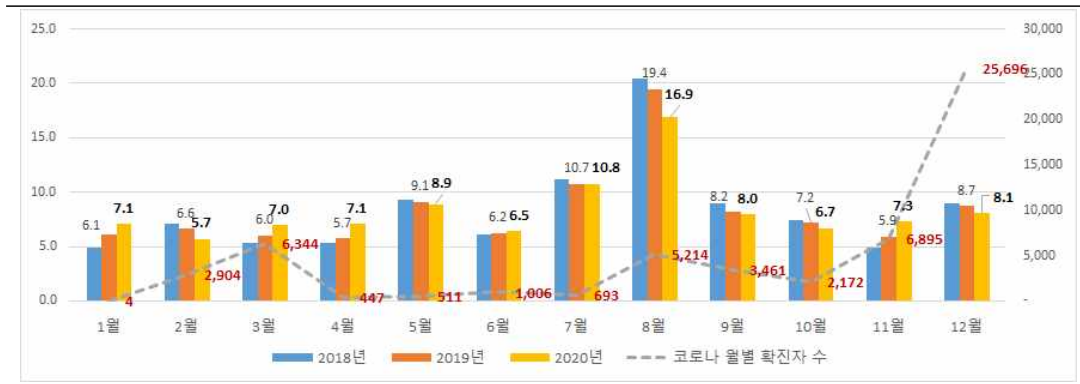
(단위: %)





### <월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

(단위: 명/%)



한편 연차 사용 환경은 연차 사용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조사 결과,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9.0%로 2019년(71.0%)보다 2.1%p 감소하였으며,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의 전반적 만족도는 72.2점으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55.0점)보다 만족도가 약 31.3% 높은 수준이다.

### <연차휴가 만족도 현황>

(단위: 점/100점 만점 기준)

